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2022년 대외무역규모 4.4%(달러화 기준) 증가

-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6조 3,096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은 7.0% 증가한 3조 5,936억 달러, 수입은 1.1% 증가한 2조 7,160억 달러임
- 국가(지역)별 수출입을 보면 對아세안 교역액은 11.2% 증가한 9,753억 달러, 對EU 교역액은 2.4% 증가한 8,473억 달러, 對미국 교역액은 0.6% 증가한 7,594억 달러, 對일본 교역액 3.7% 감소한 3,574억 달러, 對한국 교역액은 0.1% 증가한 3,623억 달러임
- 수입 분야는 비료,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갈탄, 정제유 등의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79.9%, 41.4%, 25.7%, 17.8%, 17.3%로 높게 나타났고, 수출 분야는 자동차(새시 포함), 희토, 정제유, 미단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재, 트렁크 등의 수출액 증가율이 각각 74.7%, 62.8%, 48.7%, 33.7%, 28.2%로 높게 나타남
- 12월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한 5,341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9.9% 감소한 3,061억 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2,280억 달러임

자료원 : 해관총서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5/4794176/index.html>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5/4794352/index.html>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5/4794311/index.html>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5/4794270/index.html>

2 中, 1~11월 경공업 기업 이윤 총액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

- 중국경공업연합회에 따르면 1~11월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경공업 기업들의 매출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한 21조 5,500억 위안(한화 약 3,960조 원),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1조 3,336억 위안(약 245조 원), 이윤율은 6.2%로 전년 동기대비 0.19%p 증가함

- 1~11월 경공업 부가가치는 2.9% 증가하였고 11월 태양전지, 가스온수기, 가정용 세탁기 등 제품의 생산량 증가율은 10% 이상에 달했음
- 1~11월 경공업 10대 주력상품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6조 2,540억 위안 (약 1,149조 원)으로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 대비 1.1%p 높게 나타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1/11/content_25959009.htm

3 中, 2022년 신에너지차 판매량 567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

■ 중국 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35.1% 증가한 64만 대로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2022년 전년 판매량은 90.0% 증가한 567만 대로 집계됨

- 2022년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27.6%로 2021년 대비 12.6%p 상승. 향후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계속하여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850만 대, 침투율은 36%에 달할 전망

*침투율 : 관련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주로 기존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서비스가 진출했을 때 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비율로 나타냄

- 상하이자동차, 광저우자동차, 둥펑자동차, 지리자동차, 치루이자동차, 창청자동차 등 전통 자동차 기업의 신에너지차 사업이 빠르게 성장. 12월 판매량이 1만 대 이상인 기업은 14개사로 전체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의 82.1%를 차지했음. 이 중 판매량 1~5위는 비야디(23만 5,000 대), 상하이GM우링(8만 5,600 대), 테슬라(5만 5,800 대), 지리자동차(4만 4,600 대), 창안자동차(3만 9,200 대)로 나타남

■ 한편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2022년 기동차(机动车; 전기·석유·휘발유 등 동력기관을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기차나 오토바이 전동차 등도 포함) 보유량은 4억 1,700만 대, 이 중 자동차(汽车) 보유량은 3억 1,900만 대로 집계됨.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전년 대비 67.1% 증가한 1,310만 대로 전체 자동차 보유량의 4.1%를 점함

- 이 중 순수전기차 보유량은 1,045만 대로 전체 신에너지차의 79.8%이며, 신규 등록된 신에너지차는 535만 대로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23.1%에 달했음

-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말까지 차량 양도 건수가 3,027만 건, 이 중 자동차 양도 건수가 2,869만 건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했음

자료원 : 중국증권보, 경제참고보

http://www.ce.cn/cysec/ny/gdxw/202301/11/t20230111_38339147.shtml

http://www.jjckb.cn/2023-01/12/c_1310689914.htm

4 中, 2022년 굴착기 판매량 20% 감소..수출 물량은 신기록

■ 지난해 중국의 굴착기 생산업체는 내수 판매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 규모는 약진함

- 중국 공정기계협회에 따르면 26개 굴착기 생산업체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26만 1,300대이며, 굴착기 판매량은 2016년 이래 최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며, 판매량 26만 대는 2019년(23.5만 대) 수준에 불과함. 이 중 내수 시장 판매량은 44.6% 감소한 15만 1,900만 대를 기록했고, 수출은 59.8% 증가한 10만 9,500대로 역대 수출물량 신기록을 달성함
- 저조한 내수 대비 수출 실적은 양호하여 최근 굴착기 수출량 증가율은 각각 2020년 30.5%, 2021년 97.0%에 달했고, 2022년은 수출증가율은 59.8%이지만 물량은 신기록을 달성함. 수출량이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0%에서 2022년의 42%로 상승, 2022년 9월 당월 수출량은 처음 중국내 판매량을 초과하였음

자료원 : 증권시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1-12/A1673477148181.html>

5 中, 중고차 수출 업무 전개 지역 확대

- 최근 중국 상무부, 공안국,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중고차 수출업무 전개지역 범위 확대 통지'를 발표하여 랴오닝, 푸젠, 허난, 쓰촨, 허베이 스자좡,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지린 훈춘 등 14개 지역에서 중고차 수출 업무를 전개한다고 발표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및 소비국이자 중고차 증가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고차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중국자동차유통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중고차 수출량은 1만 6,000대를 돌파했으며 수출 단가는 2019년의 5,000달러에서 2021년의 1만 5,000달러로 상승함

- 중국은 2019년에 10개 지역에서 최초로 중고차 수출 업무를 개시하고 2020년에 30개 지역으로 확장했으며, 점차 수출기업 범위도 확대되고 정책도 갖추어져 중고차 수출에 편의성이 증진되고 있는 추세임

자료원 : 신화망

http://www.news.cn/fortune/2023-01/11/c_1129272185.htm

6 中, 석탄 1억 톤 이상 생산기업 7개사가 전국 생산량의 46% 차지

- 중국 석탄공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석탄 생산량이 5,000만 톤을 초과한 기업은 총 15개사로 2021년과 동일했고 이들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25.9억 톤으로 전체의 58%에 달했음
- 연간 석탄 생산량이 5,000만 톤 이상인 기업은 8개사로 생산량은 총 5.4억 톤이며, 연간 생산량이 1억 톤을 초과하는 기업은 7개사로 생산량은 총 20.5억 톤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함
- 연간 석탄 생산량이 1억 톤을 초과한 기업은 각각 국가에너지그룹(国家能源集团), 진닝홀딩스그룹(晋能控股集团), 산둥에너지그룹(山东能源集团), 중국석탄그룹(中煤集团), 산시석탄그룹(陕煤集团), 산시자오메이그룹(山西焦煤集团), 루안광업그룹(潞安化工集团) 등임

자료원 : 광저우일보

http://www.ce.cn/cyssc/ny/gdxw/202301/11/t20230111_38339106.shtml

7 中, 2022년 1~11월 징진지(京津冀) 지역 수출입 13.6% 증가

- 중국 스자좡해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한 4조 5,780억 위안(약 841조 원)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을 5%p 상회함. 이 중 수출은 0.3% 증가한 1조 1,807억 위안(약 217조 원), 수입은 19.1% 증가한 3조 3,974억 위안(약 624조 원)임
- 일대일로 국가 간 수출입은 24.7% 증가한 1조 8,138억 위안(약 333조 원),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출입은 38.9% 증가한 2,104억 위안(약 39조원), 對캐나다 수출입은 1.8배 증가한 1,239억 위안(약 23조 원)을 달성

- 전기기계제품이 수출증가 견인 역할을 했으며 1~11월 징진지 지역의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5% 증가한 5,771억 위안(약 107조 원), 정제유 수출은 28.4% 증가한 1,669억 위안(약 31조 원)으로 집계됨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54688518816785144&wfr=spider&for=pc>

8 中, 임플란트 대량구매 입찰대비 낙찰가 55% 하락, 수입산 브랜드 가격 전면 하락

- 1월 11일 쓰촨성 중국의료보장국에서 치과 임플란트 대량구매 입찰 결과를 발표. 입찰 참가기업 55개사 중 39개 기업의 제품이 낙찰되었고 입찰 세부 가격대는 600위안(약 11만 원)에서 1,850위안(약 34만원) 사이를 기록, 낙찰 평균가격은 900위안(약 16만 5,000 원)으로 입찰가 대비 낙찰가의 하락폭이 55%에 달함
- 이번 임플란트 대량구매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8만 개사이며, 이 중 민영기관이 1.4만 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함. 임플란트 수요량은 287만 세트로 연간 임플란트 수요(400만 세트)의 72%를 차지했음. 대량구매 효과로 환자의 부담이 연간 40억 위안(약 7,353억 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추산됨
- 이 중에는 수입산 임플란트 브랜드도 포함되며 스위스산, 미국산, 스웨덴산 브랜드는 금번 대량구매 입찰을 통해 가격대를 5,000위안(약 52만 원)에서 1,850위안(약 34만 원)대로, 한국산 브랜드 오스텍과 덴티움은 가격대를 1,500위안(약 28만 원)에서 770위안(약 14만 원)대로 낮추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01/12/c_1310689913.htm

9 中 중소 가전업체, 쑤닝이꺼우 플랫폼을 통해 농촌시장 공략 개진

- 최근 중국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의 제고와 중앙 및 지방에서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하여 가전제품의 하향(下乡)을 추진하면서 농촌소비 잠재력이 방출되고 있음
- *가전하향(家电下乡) : 중국 소비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 2022년 말까지 ‘쑤닝 리테일 클라우드(苏宁易购零售云)’는 전국에 1만 2,000개의 점포를 오픈하고 가전가구, 3C 전자제품 판매망을 구축하여 1,800개 브랜드의 농촌시장 개척을 지원함

- Suning Retail Cloud는 300개 도시, 2,800개 현, 30,000개소 농촌지역에 10만 명의 수리·배송 서비스 직원을 배치하여 전국의 98% 이상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실현
- 2022년 쑤닝이꺼우의 쑤닝 리테일 클라우드(苏宁易购零售云) 채널을 통하여 주방가전 브랜드 야러쓰(雅乐思), MQ(名气), BEFR(比弗丽)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각각 240%, 89%, 418%의 증가율을 보임

자료원 : 중국가전망

http://www.ce.cn/cysc/zgjd/kx/202301/11/t20230111_38339649.shtml

10 맥킨지, 2023년 중국 소비 시장 5대 트렌드 발표

■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최근 2023년 중국 소비 시장의 5대 트렌드에 대해 발표

- 5대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①중국은 연간 중산층 가정이 기타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향후 3년간 연간 수입이 16만 위안(약 2,951만 원)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가 추가로 7,100만 가구 증가 예상 ②소비자들이 대중 브랜드보다 고급 브랜드를 선호 ③위챗 공동구매, 타오바오, 생방송 전자상거래 등을 불문하고 가장 저렴한 플랫폼을 통하여 더욱 창의적인 제품을 구입 ④소비자들이 자체 학습을 통해 상품의 기술적인 수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 ⑤많은 소비자들이 계속하여 해외 브랜드보다 본토 브랜드를 선호
- 한편 중국인들의 저축이 증가하는 추세로 설문조사 대상자 중 58%는 '만일에 대비해 저축'한다고 발표하여 2014년 이래 그 비중이 가장 높았음. 2022년 1~9월 1인당 가처분 소득의 명목 성장률은 5.3%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 소비할 자금이 충족하여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고급 브랜드 업체에 기회를 가져다 줄 전망
- 또한 중국의 소비자들은 부유해지는 동시에 더욱 명석해지고 있으며, 일용소비재를 구입할 때 기능을 가장 중요시 함. 비식품류의 경우 3개 핵심 요소는 효능, 안전성 혹은 천연성분, 브랜드 인지도 등임. 이로써 고품질의 디자인과 기능의 결합은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핵심인데, 이는 전문 의류 혹은 아웃도어 시리즈 제품의 인기 상승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은 우선 본토 브랜드의 품질과 혁신을 우선 고려하며 '중국 제조' 라벨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님.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본토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답함. 이 외 본토 기업들은 소비자와 가까이 있어 소비 추세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자료원 : 환구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52326924121684404&wfr=spider&for=pc>